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20)

예수님의 중보기도(5)

[본문: 요 17:15-26]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5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첫째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둘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저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 하옵소서”와 같이 이런 내용은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도처에 악이 성행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는 어떤 한 지역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있는 것처럼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도 인간의 죄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누가 행합니까?

선은 선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선한 사람이 행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가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선을 행하기 위해 마음으로 결심해 보지만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려면 진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기 어려워야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에는 너무도 두뇌회전이 잘 되고 쉽지 않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선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기쁨이 있는 곳에는 슬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는 이유는 선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은 단 한가지뿐입니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다면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은 하나님 한분뿐이십니다. 모든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저의 생활 전체를 교회에 묶어 놓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인간은 순간적으로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므로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전부 교회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결길로 가게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심이 없기 때문이고,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에서 구원해주시길 간구하셨고 제자들이 하나 되길 간구하셨고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라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음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거룩함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모두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흠있고 부정한 제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헌신도 다 헌신이 아니고 봉사도 다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봉사와 헌신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인지가 중요합니다.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도 중요하지 않고, 금 그릇인가 은그릇인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본질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쓰임을 받습니다. 더러우면 금 그릇이라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릇처럼 쓰기 원하십니다. 금 그릇은 귀한 그릇이지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꼭 결정적인 순간에만 쓰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에 한번만 쓰임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그릇은 어떻습니까? 막그릇은 아무 때든지 사용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언제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릇은 구경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 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앙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비결은 순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는 것보다도 교회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직한가, 교회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까닭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업은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통을 받으면 정결해집니다. 연단은 불에 들어간 쇠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기를 바라십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베드로사도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령의 요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성도는 거룩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사고방식을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거룩은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은 경우 편협합니다. 자신만을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 고집스러움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편협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너희’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악에서 구원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거룩의 또 하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도 견딜 수 있게 될 것을 간구했고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로마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묶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천국이 예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예비 되어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비밀을 가르쳐 주마,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퇴출과 실직 등으로 절망스러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4~16장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칠 자를 고치시고, 싸맬 자를 싸 매주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연단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출처: 온누리신문 (<http://news.onnuri.or.kr>)